

HRD 1월의이슈

-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37조 6,761억 원 국회 의결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실현
- 노동시장의 모두를 위한 「AI+역량 Up 프로젝트」 추진



2025년 국가직무능력표준
(NCS)개선·보완
57개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이끌
‘제1기 기특한 명장’ 선정
67명



‘사전심사 프리패스’ 부여
우수 직업훈련기관
15개소



11월 고용시장, 월간 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
63.4%

Vol.118
January 2026
01

노동이 함께하는 AI 대전환, 전 국민의 AI 잠재력을 깨우겠습니다!

—
지난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I+역량 Up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현장에 발맞춰 향후 5년간 1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AI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청년 엔지니어 양성부터 기업 맞춤형 재직자 훈련, 중장년의 직무 전환 지원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전환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내일을 앞장서 열어가겠습니다.

책의 제목을 클릭하거나, 책의 끝단을 클릭한 채로 넘겨주세요. ✨

HRD 현장

정책동향

- 04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국회 의결
- 05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실현합니다.
- 08 노동시장의 모두를 위한 「AI+역량 Up 프로젝트」 추진
- 11 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 12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14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37종 서류 제출 부담 사라진다.

현장동향

- 15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취업의 문 활짝!
- 16 훈련 문턱 낮추고, 기업 성과 올리고!
- 17 청년의 ‘내 일’을 찾는 일경험, 정부·기업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 17 “수많은 갈림길에서, 내 길을 찾다”
- 18 우리 지역 중장년 인재 발견 - 좋은 일자리 잇고, 함께 성장하고!
- 19 고용노동부, 우수 직업훈련기관 15개소에 ‘사전심사 프리패스’ 부여
- 20 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5년 7~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
- 22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떠오르는 셋별, ‘기특한 명장’ 위해 노동부-교육부 손 맞잡는다

연구 IN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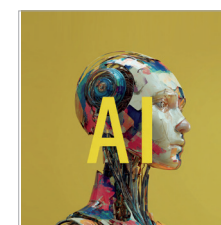
- 24 국내 재취업지원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 24 직업능력개발 정책평가를 위한 실험적 방법론 적용 방안 연구
- 25 일학습병행 우수사례집
- 25 중대재해 사고백서

고용 BRIEF

- 26 2025년 11월 고용동향

기관 LINK

- 27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cover story

사람 중심의 AI 대전환,
노동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통 권 제118호

발행일 202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

052-714-8258

구독신청 및 문의 2025258@hrdkorea.or.kr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국회 의결



2025년 12월 3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국회 의결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37조 6,761억원으로 확정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7조 6,761억원으로 의결되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309억원(+6.6%) 증가했다.

* <`24> 33.7조원 → <`25> 35.3조원 → <`26.정부안> 37.6조원 → <`26.최종> 37.7조원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 6,157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증액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예산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의결해 주신 뜻 깊은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일터의 혁신과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에 집중 투자

2026년 예산 37조 6,761억원 (+2조 3,309억원)

일터의 혁신

안전 일터

- 민간·지자체 등 가용 자원 총동원 → 현장 밀착형 산재예방체계 구축
- 영세사업장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산재처리기간 단축 등 보상체계 강화
- 산업안전 R&D 등 예방체계 고도화

공정 일터

- 권리박 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대규모 실태조사 등 통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반 마련
- 일하는 사람 권익 보호 강화

행복 일터

- 주4.5일 지원 신설
- 출산급여 상한 인상 등 육아지원 지속 확대
- 사업주·동료부담 최소화 및 사용여건 개선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고용안전망 확충

- 실업·구직자 생계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대지급금 등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회복지원 확대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미래 인재육성

- 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직업훈련 전면 개편
- 새로운 지역일자리 모델 지원 및 고용 선제대응체계 구축
- 통합고용서비스 제공 및 AI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맞춤형 지원강화

- 청년: 국민취업지원 구축추진수당 인상 및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 중장년: 일자리 기회 및 재취업 지원 확대
-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근로지원인 지원 등 어려움 해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실현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실현합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1일(목) 16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했다(농림축산식품부 합동). 이날 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차관, 본부장 및 실·국과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노동·생명 존중 기조로 과감히 전환했다면서, 앞으로는 현장 밀착·구체적 실행·성과 체감을 통해 주권자의 명령을 성과로 실현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과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기조로 전환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했다.

안전한 일터 특공대가 2.2만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현장점검을 실시(안전일터 프로젝트)하고,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25.9.15.)·시행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에 총력을 다했다.

임금체불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임금구분 지급제 도입 추진 등 “임금체불 근절대책('25.9.2.)”을 수립·시행했다.

노사정 간의 신뢰를 다시 세우고,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하청 간 대화소통을 촉진하는 단초를 마련했으며, 62년 만에 노동절을 복원('25.11.11., 법 개정)하는 등 노동 존중의 기반을 조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25년 3분기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75명으로 전년 대비 26명이 증가했고,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수는 감소함에도 경제규모 확대, 임금총액 증가 등으로 '25년 9월 임금체불액(1조 6,413억원)은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20·30대 70만 쉬었음 청년 등의 취업애로도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① 노동시장 격차 해소

- △일할 기회 격차, △산업현장 위험의 격차, △노동시간의 격차, △임금·복지의 격차 등 노동시장의 4가지 핵심 격차의 해소 추진

① 청년의 일할 기회 격차 해소

청년의 나이를 29→34세로 상향하여 20대뿐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20·30대 70만 쉬었음 청년들에게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본격 추진한다. 기존 대학생 중심의 청년 DB를 제대군인,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정부가 먼저 다가갈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를 설치해 발굴·접근·회복의 세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가교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발굴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적성과 트렌드에 맞는 일경험과 훈련을 확대한다. 4.3만명 청년들에게 대기업 등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4.9만명을 대상으로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한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인상(50→60만원, '26년), 비수도권 청년 근속인센티브 확대(최대 720만원, '26년)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 정착하는데 부담을 줄여 나간다. 이에 더하여, 기업, 관계 부처, 지방정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26년 1분기 내에 쉬었음 청년을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② 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소규모의 사업장을 산업 안전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전환한다. 먼저, 지방축사(전국한우협회 등)·벌목(원목생산협회 등)·한파한국 생활폐기물중앙회 등·질식(상·하수도협회 등)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작은 사업장까지 정책이 닿는 ‘길목(접점)’을 확보한다. 일터지킴이(1천명) 등과 함께 정책길목을 활용해 업종별 핵심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작은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위험한 기계교체, 안전장비 구입 등)을 위한 약 5,400억원의 재정지원을 신속히 연계한다('26년 5,371억).

<작은 사업장 재해예방 지원강화 방안(예: 태양광 설치공사)>

태양광패널 설치 계획 공유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 시
지방정부(신고 등) 정보 활용	기술·재정 지원: 일터 지킴이 등 + 점검·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중견·대형사업장은 자율적 예방을 촉진하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중대재해 발생 시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사망사고 다수·반복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참여·권리를 강화한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여 사업장의 재해현황,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투자 현황 등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규범을 수립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작업중지요구권 신설, 작업중지 행사요건 완화 등 작업중지권을 확대하여 위험한 작업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 피할 권리를 보장한다.

③노동시간 격차 해소 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 추진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할 예정이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하여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측정·기록의무,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 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를 추진하고,('26.상~). 고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분기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야간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사·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노동시간 관리방안도 마련한다('26.9월).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 사업(324억원, '26년)을 통해 모범적인 주4.5일제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인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정법」의 입법도 추진('26.3월~)한다.

④임금·복지격차 해소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선다.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26.3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 반영 등을 추진('26.4월)한다.

처우개선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소속·산하기관의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복지 격차를 줄여줄 수 있도록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 안착을 토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 인프라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①원칙 법제화 + ②임금정보 제공 강화 + ③초기업교섭 활성화 등을 담은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법제화와 함께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초기업교섭 모델 구축 및 민간

자율확산을 도모하면서, 임금직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무·직위·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제공한다.

임금체불의 법정형 상향(3년·3천만원→5년·5천만원, '26.1월)을 추진하고, 임금구분지급제 의무화를 추진('26.1월)하여 원하청 관계에서의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장 도산 시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3개월→6개월), 상습반복 체불 시 처벌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체불 관련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②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인구구조, AI·기후위기 등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노동시장 참여 촉진, △AI 역량 강화·안전망 구축 등 노동소외 방지

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장년, 일하는 부모, 장애인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여 생산인구 부족에 대응한다.

먼저, 중장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40대는 경력설계 및 폴리텍 신기술 훈련 등 새로운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50대는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1,000인 이상 → 500인 이상)한다. 60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세대상생 정년연장도 추진한다.

일하는 부모는 10시 출근제('26.1월), 방학 중 육아휴직(단기 육아휴직, '26.7월) 등을 통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의무고용률 상향(민간: 3.1→3.5%, 공공 3.8→4.0%, '29년) 등 지원방안을 다각화한다.

⑥ 외국인노동자 통합 지원 100만 외국인 노동자가 잠시 머물다 가는 저렴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이웃으로 정착하도록 노동시장 관점에서 통합·지원한다.

우선, E-9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력의 취업 현황을 DB화하여 분석·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내국인과 외국인 일자리가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외국인력 허용 분야, 규모 산정 등 수급 설계를 다각화하여 꼭 필요한 만큼만 도입할 계획이다.

우수 외국인력을 성장, 정착시킬 수 있도록 현장의 경력,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비전문 → 준숙련 → 숙련 인력으로 전환하고 출국·재입국 없는 장기근속과 장기체류를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알선을 통합 지원한다.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상담·점검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침해, 위험한 환경 등의 경우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장 변경이 원활하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⑦ 일하는 모두에게 AI 역량 강화지원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쓸 수 있는 사람의 일자리가 되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AI+역량 業UP

프로젝트”를 통해 아래 15만명에게 AI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먼저, 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AI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11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AI 훈련을 제공한다. AI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등 2.8만명을 대상으로 AI 기초역량 훈련을 제공한다.

특히, '26년 1분기까지 「AI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AI전환에 따른 일자리 소멸 및 대체 등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업종·직종별 수요를 고려한 인재양성 전략, 분야별 직무전환훈련 설계 등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⑧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AI 발전에 따라 노동자와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44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존중 입법 패키지를 추진한다.

먼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리행사 과정에서 갈등 발생 시 국가가 조정 등을 지원한다.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법으로 보호하여 개인이 노동자임을 증명하지 못해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한다('26.상~).

노동법 적용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짜 3.3 계약은 국제정보를 활용한 기획 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62년 만에 노동절이 복원된 만큼, 온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향유하고 노동존중문화의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26.5.1 노동절 행사).

또한, AI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이나 과도한 감시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응하여 우선 연말까지 마련 예정인 「채용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주요내용) ①학습 데이터의 편향으로 특정 집단을 차별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고, ②AI가 수행한 평가나 판단기준을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게 하는 한편, ③해고나 징계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인간의 통제권’ 보장

⑨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 대응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기후변화 등 대응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고, 산재처리기간 단축('24년 228일→'26년 160일)과 함께 산재 신청부터 직업 복귀까지 종합 지원한다. 중대재해 피해 동료, 재난대응 노동자 등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 고객응대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이행 시 제재도입 등의 정신건강 장해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 강화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설비 지원 확대('26년 280억, +80억), 지방정부·민간과 보건조치 정보제공 및 지도(14만개소) 등 한파폭염으로부터의

보호도 강화한다.

특히, 노사정이 산업안전 예방의 주체로서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파·폭염,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민관합동 산업안전 연구개발(R&D), 민관 합동 안전문화 확산 등의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⑩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대전환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한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현재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개편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사람들을 신속 발굴 및 직권 가입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N잡,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비임금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일자리정책은 지방 중심으로 바뀐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지역고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정부 중심 거버넌스 역할 강화, 자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수립·지원이 가능해진다.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기업·지역 사회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정의로운전환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예산을 복원해 발굴·육성·성장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중점과제에 대해서 중앙·지방·현장 및 이슈별로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 단위의 경사노위 주관 사회적 대화, 지역 단위의 지방 정부, 지역노사민정 및 지역·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간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노사정이 함께 현장 기반의 실행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주권자의 명령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로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출선수범할 계획이다.

먼저, AI를 기반으로 업무를 효율화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AI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작업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노동법·산업안전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구인공고 중 채용질서 및 법 위반 여부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학생·공무원 안전교육과정 개설·운영 및 이수 의무화,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 생명·안전 감수성이 정부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미션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2조 정신을 일터 민주주의로 실현해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 노동부’라고 부르며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모두를 위한 'AI+역량 Up 프로젝트' 추진



2025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노동시장의 모두를 위한 'AI+역량 Up 프로젝트' 추진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 발표
- 일자리 찾는 구직자, 일하는 노동자, 이·전직 준비자를 위한 인공지능(AI) 교육훈련 지원
- 5년간 100만명 이상이 인공지능(AI) 훈련을 받을 것으로 기대 [관련 국정과제] 92. 인구변동, 디지털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I+역량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월 11일(목)에 있었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의 후속 대책으로,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기에 있는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이하, 'AI') 활용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은 AI가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해서는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그간 고용노동부는 청년, AI 전문가, AI 전환(이하, 'AX') 중소기업, 직업훈련기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관계분과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노동이 함께하는 AI 대전환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향후 5년간 노동시장에 있는 국민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탄탄히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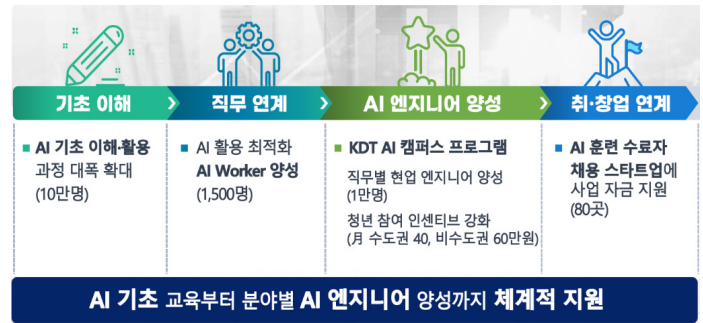
1 (일자리단계1) 노동시장진입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구직자 등을 위해 AI에 대한 기초 이해 및 직무 활용, 솔루션 개발까지 'AI 역량 향상 모델'을 제시하고, 훈련을 적극 지원한다.

직업훈련 과정 전반에서 AI 관련 내용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일반 훈련에 AI 기초 이해 및 활용 과정을 확대(5.6만명 목표)하고, 더 높은 수준의 AI 훈련 수가를 위한 디딤돌로서 AI 원격 훈련과정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K-디지털 크레딧*, 3.3만명)

*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AI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분야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

대표적인 청년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KDT)은 분야별 AI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업그레йд 된다. “KDT AI 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AI 시스템 개발, AI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주요 직무의 현업 엔지니어 1만명을 키우고,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참여수당도 인상한다.('25년은 최대 31.6만원/월, '26년은 최대 수도권40만원, 비수도권60만원, 인구감소지역80만원/월)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AI 훈련 수료자를 채용한 스타트업에 대해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2 (일자리단계2) 노동시장활동기

중소기업 노동자의 역량을 키우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AI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AI가 산업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기업의 AI 훈련 규모는 증가세이지만, 여전히 전체 훈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AI 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도 공감**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 수렴 결과, △AX 수준별 맞춤형 훈련,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도메인+AI' 훈련, △이론보다는 현장 문제해결형 AI 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10월 기준 6,740개 사업장의 71,574명이 AI 훈련에 참여. 이는 전체 훈련사업장(9.7만개소) 대비 6.9%, 전체 훈련인원(183만명) 대비 3.9% 수준

** 향후 3년내 AI 훈련 의향 유무('25.8월, 노동부 조사): 있음 67.8% vs 없음 32.2%

이에 고용노동부는 “AI 훈련 희망 중소기업 발굴 → 훈련수요 진단 → 맞춤형 훈련”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노동부 중심의 기업 발굴을 넘어 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 등과 협업하여 체계적으로 기업을 발굴한다. 정부의 AI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찾아 AI 직업훈련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각 부처 사업 간 시너지를 높이고, 기업도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굴된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상황 진단과 AI 훈련 로드맵 설계를 지원한다.('26. 2천개소 목표) 이를 위해 지역별로 AI 전문기관인 '중소기업AI 훈련확산센터'를 새로 지정하여('26. 10개소) 도메인 지식과 AI 지식을 모두 갖춘 민간 직업훈련 주체의를 양성할 계획이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AI 훈련을 연계한다. 예컨대, AI 훈련 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AI 온라인 무료교육을 지원하여('26. 10만명)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AX 기업에 대해서는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실전 문제해결 방식의 훈련을 제공하는('26. 600개소) 등 기업 상황에 맞는 AI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년 등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AI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중장년고용네트워크와 17개 광역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통해 중장년 등의 AI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39개 폴리텍 캠퍼스에서 운영 중인 중장년 특화과정을 포함한 전체 과정에 AI 기초활용 교육을 지원(2.8만명)하고, AX 훈련과정(1천명), 직무 전환훈련(500명) 등으로 구직 활동 및 재취업에 필요한 AI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4 (AI훈련기반조성) 인프라확충과부처협업및사업간연계

이번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역의 AI 훈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AI를 가르칠 사람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훈련

규모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지속 가능한 AI 교육훈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대책에는 체계적인 AI 훈련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지역 산업과 매칭한 ‘피지컬 AI 실습실’(예> 폴리텍 창원캠퍼스: 기계+AI 분야)을 4개 설치하여 지역 중소기업, 대학 등에 개방한다. 또한 대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 AI 훈련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곳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교·강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AI를 가르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효과적인 노동시장 AI 인재양성을 위해 관련부처와의 협업도 한층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기업 AX 지원 사업(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과 기업 AI 훈련 사업(노동부)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사업 간 홍보, 상호 수요조사 후 희망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AI 합동 컨설팅(AI 기술 전문가와 훈련 전문가로 ‘원 팀’ 구성) 등 사업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해 기업과 노동자가 AI를 제대로 활용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나아가 AI 훈련 참여자의 취·창업 연계, 부처별 교육훈련 플랫폼 간 우수 AI 콘텐츠 공유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처 간 협업사업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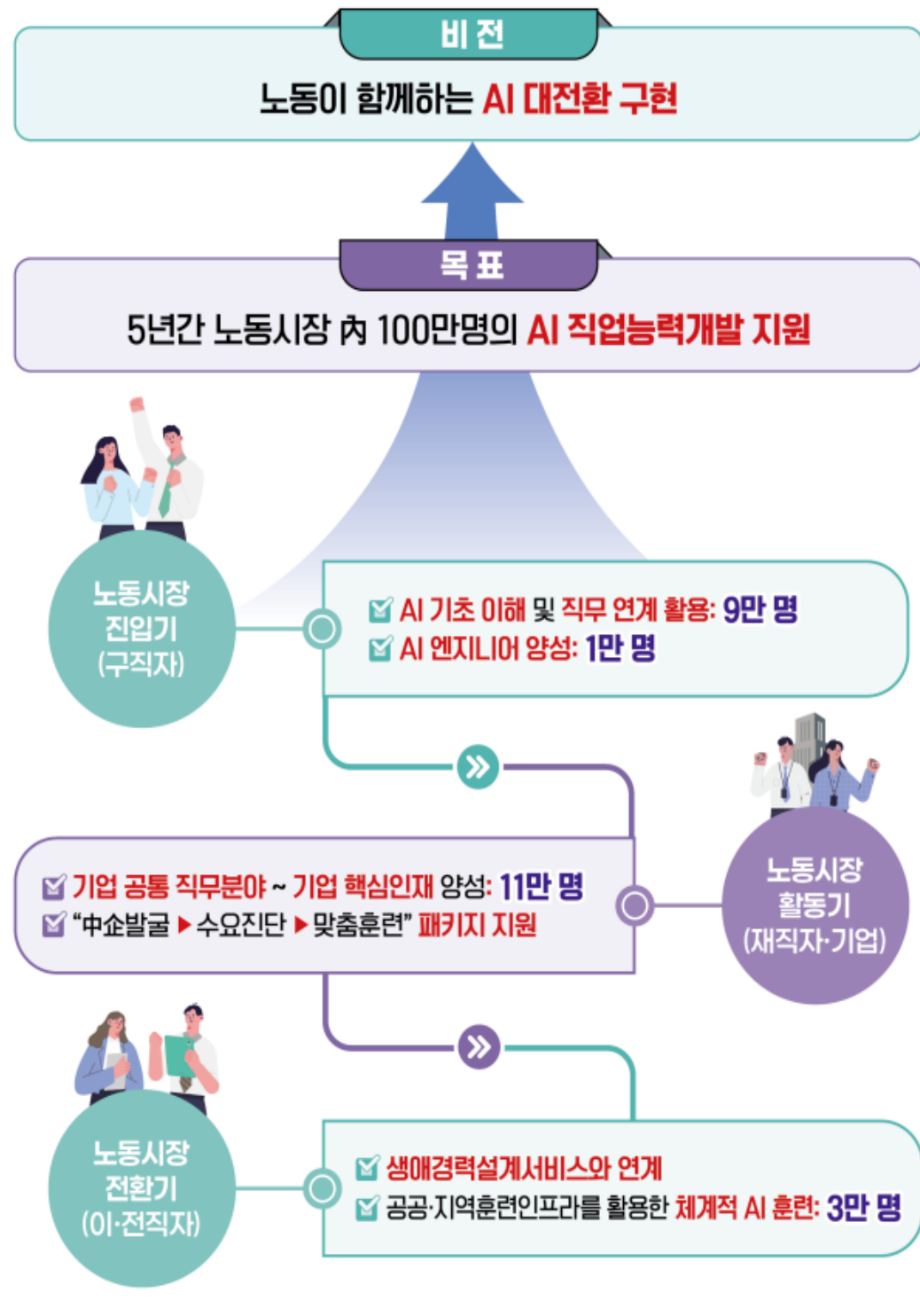


AI 사업 간 빈틈을 메우고 시너지 창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확산에 따른 일하는 방식과 일터 문화의 변화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엄연한 현실인 만큼 일할 기회를 찾는 분들,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AI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노동부는 ‘노동’이 함께 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전환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담은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AI+역량 Up 프로젝트



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2025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개최

<2025년 고용영향평가 주요 평가 결과>

-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 예비창업패키지의 후속으로 초기창업패키지를 지원받은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액 1.49억원, 고용 1.21명, 초기창업패키지 후속으로 창업도약패키지를 지원받은 경우 매출액 5.33억원, 고용 4.61명을 추가 창출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8~'24년 기간에 사업을 통한 시·군 지역 청년 농업인 1명 증가는 피고용자 약 3명 증가에 기여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지역내외 생산·산출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양한 경로에서 전국적인 고용창출에 기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은 12월 12일(금) 10:00,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으며, 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공유되었다.

* ①「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③「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 ④「AI 바우처 지원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⑤「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되었다.”라며 “올해 평가 역시 일자리 관점의 제언이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될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4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정책 제언 수용 사례>

공공 아이돌봄비 사업	
제언 내용	이행 내용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 조부모 돌봄 가구 수요를 고려하여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돌봄의 사회적 인프라 확충 필요	(지원기준) 중위소득의 150% → 200% (교육기관 확대) 288개소 → 294개소
아이돌봄비 처우개선	돌봄수당 인상(11,630→12,180원) 영아돌봄수당 신설(시간당 1,500원)

올해 수행된 고용영향평가 10개 과제의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www.kli.re.kr/eia)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2025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목록

분야	과제명
산업	1. AI 바우처 지원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3.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
인구	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5. 취업지원 전달체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청년·중장년층을 중심으로
	6. 늘봄학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	7.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경북)를 중심으로
	9. 영종도 복합리조트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0.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25.12.12.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발표과제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2025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25년 국가직무능력표준 6개 개발, 57개 개선

생성형 AI 엔지니어링 NCS 개발: 산업 현장의 속제를 풀다

- ➡ 최근 몇 년 사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이에 따라 기획·구현·운영 전 과정을 책임지며, 비즈니스 요구에 맞춰 인공지능(AI) 모델을 선택하고 최적화하는 실무형 인재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나 현장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양성하고 평가할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에,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성형 AI 엔지니어링 NCS'를 신규 개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선정하고 학습시켜, 기업 맞춤형 제품·서비스를 만들고 확인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가 담겼다. 이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로 훈련기관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은 필요 인재를 정확히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 변화에 발맞춰 2025년에 신규 개발한 6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개선·보완한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12월 16일(화) 확장·고시*했다.

* (현황) 24개 대분류, 81개 중분류, 270개 소분류, 1,096개 세분류, 13,296개 능력단위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표준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자격과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융복합 직무 확대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생성형AI엔지니어링', 'AIoT운영플랫폼구축', '차량용 제어기 SW개발' 등 총 6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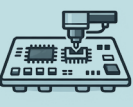


아울러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클라우드플랫폼구축', '보안 엔지니어링', '3D프린팅소재개발' 등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보완하고, 4개 소분류(가전기기개발 등)를 1개(전자기기개발)로 통합*해 활용성도 높였다.

* (기준) 4개 소분류(가전·산업용·정보통신·전자응용기기 개발), 13개 세분류 → (개선) 1개 소분류(전자기기 개발), 3개 세분류로 통합·보완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미래산업 성장의 기반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직무변화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www.n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목록

NCS	직무 정의	개발 필요성
 생성형AI엔지니어링	생성형AI엔지니어링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생성형 AI 모델을 선정하고 학습시켜, 맞춤형 프로덕트를 제작하고 검증하는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이다.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획·구현·운영 전 과정의 실무역량을 갖춘 인력 수요가 증가해 NCS 개발 필요
 AIoT운영플랫폼구축	AIoT운영플랫폼구축은 AIoT 운영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구축 계획을 수립한 후,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통계 분석 및 예측 기능을 단계적으로 구현하며, 구현된 기능의 품질을 검증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을 AIoT 서비스 플랫폼으로 환류를 수행하는 일이다.	AI·IoT 융합 기술의 확산으로 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운영 전문 인력양성이 요구되어 NCS 개발 필요
 차량용 제어기 SW개발	차량용 제어기 SW개발은 개방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SW 호환성 확보, 확장성 및 재사용성 보장을 위해 표준SW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차량용 제어기 SW를 설계, 구현, 검증하는 일이다.	미래차·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과 전장 기술 고도화가 가속되면서 차량 제어 SW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여 NCS 개발 필요
 전자부품표면실장(SMT)	전자부품표면실장(SMT)은 전자기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계획에 따라 자재를 준비하고 NC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표면실장 장비를 운용하며 회로기판에 전자부품을 규격에 맞도록 정확하게 장착하고 품질을 점검하는 일이다.	전자부품의 고집적·미세화로 전자부품표면실장(SMT) 공정의 정밀 제어와 품질관리 인력양성이 요구되어 NCS 개발 필요
 플라스틱재활용	플라스틱 재활용은 자원 순환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생활계 및 산업계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수거·선별·세척 등의 물리적 재활용 공정을 거친 후 재생 플라스틱 펠릿과 재생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다.	자원순환 정책 강화와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정 고도화로 현장 전문인력 확보가 요구되어 NCS 개발 필요
 공공조달관리	공공조달관리는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자가 공공조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입찰 준비부터 계약 이행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이다.	공공조달 시장 규모와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전문성·책임성을 갖춘 조달 인력 양성이 요구되어 NCS 개발 필요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37종 서류 제출 부담 사라진다.



2025년 12월 3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37종 서류 제출 부담 사라진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도 지방 사업장에 외국인력(E-9) 고용 허용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 일자리 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구분	개인 마이데이터	법인 마이데이터
이용서비스 (마이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9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장려금사업, 모성보호, 외국인고용허가제 등 5종
이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등 3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정보,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 11종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 실업급여 등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육아휴직급여 등 시범운영('25.12.15.) → 개인('26.3~5월), 법인('26.6~7월) 서비스 확대

고용행정통계 36종 추가 개방...고용안전망 현황 한눈에

고용행정통계포털(eis.work24.go.kr)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용행정통계도

36개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지급인원·지급현황 통계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지급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어 고용안전망 전반의 흐름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연간)'을 새롭게 개방해 연간 단위로 시도·산업별 외국인 사업장 분포나 근로자 고용현황 등을 한층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행정통계포털 화면과 기능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초기 안내(온보딩) 기능을 강화해 별도 매뉴얼 없이도 주요 기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이력서·채용 확률 컨설팅 도입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에 기반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6년에는 구직자 대상 이력서·자기소개서에 대한 인공지능(AI) 취업컨설팅, 구인기업 대상 채용 확률에 기반한 맞춤 구인 컨설팅을 신규 개발·제공한다.

또한 정책 사각지대인 "쉬웠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고용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용24 내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지역·진로유형·희망직종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을 자동 추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자의 고용보험, 직업훈련, 자격정보와 같은 핵심 고용정보를 공공마이데이터로 개방해 국민의 자기정보 활용 편의를 높이고, 민간취업포털·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에서도 조회·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인공지능(AI) 서비스 시대에 맞춰 기존 정형데이터 중심의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비정형·반정형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레이크 구축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3대 선도 과제로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역점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취업, 기업의 채용, 행정의 민원·상담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취업의 문 활짝!



2025년 12월 4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취업의 문 활짝!**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사와 구직자 동행으로 이루어낸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41건 선정·포상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목) 14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의 취업 성공을 이끌어낸 상당사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복지·금융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참여자의 복합적인 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1:1 밀착상담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취업에 이르도록 지원한 37명의 직업상담사와 청년 취업지원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한 청주고용복지+센터 등 4개 기관에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 지방정부(일자리센터, 산하 의료원, 주민센터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다문화가족센터, 경찰서, 청소년상담센터, 교육청 등

대상을 받은 김주아 상당사(장원고용복지+센터)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을 밀착 관리하여 취업 성공을 이끌어냈다.

김주아 상당사는 인공지능(AI) 기반 상담도구인 잡케어를 적극 활용해 지역 내 일자리 동향 분석을 통하여 참여자에게 꼭 맞는 구인 기업을 추천하고 면접 부담이 큰 참여자를 위해 인공지능(AI) 모의면접 및 집중 컨설팅으로 자신감을 회복시켰으며 그 결과 참여자는 경리사무직 취업에 성공했다.

상담사는 이제 혼자서도 씩씩하고 활기차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참여자를 보며 '진정한 자립의 시작'을 도울 수 있어 상담사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대상 수상자인 손보경 상당사(퍼스트인잡주거제지사)**는 중증장애로 인해 취업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던 청년이 꿈을 이루고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왔다.

빵 만드는 일을 무척 좋아하던 참여자가 상담 초기에는 지적장애로 인해 취업은 힘들 것 같으며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였으나 상담사의 권유로 제빵 일터에서 인턴형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손보경 상담사는 일터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노력한 결과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을 이루어낸 참여자의 모습에서 장애도 극복 가능하며 상담사로서 포기란 없다는 의지를 다졌다.

콘퍼런스에서는 위와 같은 대상 수상 사례를 다른 직업상담사와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상담사로서 국민에게 더 나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짐을 나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상자 모두에게 "구직자들이 취업의 문을 열 수 있게 도와주신 상담사 여러분들의 노력이 오늘 우수사례 콘퍼런스를 통해 빛을 발하는 것 같다"라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26년에는 지원 인원 확대,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이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25.1월~10월 청년 참여자 비중 72.6%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로서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10월 말까지 159만여 명이 참여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개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통상 1년), 소득지원(6개월)을 함께 제공('21년~)
 - * 전담상담사와 1:1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 역량·의지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 (지원규모) '25년 일반회계 예산 8,457억원, 목표인원 30.5만명
 - * '25년 추경 포함 시 1조 109억원, 목표인원 36만명
- (근거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요건)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I·II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지원대상 및 요건 >

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연령	소득	재산	
I 유형	15~69세	중위소득 60% ↓	4억원 이하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 6개월)
	청년 선발형	15~34세	중위소득 120% ↓	
II 유형	15~69세	중위소득 100% ↓ (청년: 소득 무관)	무관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15~25만원 등)

<주요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지원프로그램)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생계·의료·금융·주거지원 등) 연계 등
-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등

훈련 문턱 낮추고, 기업 성과 올리고!



2025년 12월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훈련 문턱 낮추고, 기업 성과 올리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시간·비대면 훈련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훈련 대비 높은 자율성·유연성 입증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정부지원 훈련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 기업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2022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5년 10월까지 393개 업체, 364,628명 훈련생이 12,603개 훈련과정에 참여했다.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이하, ‘탄력운영제’)는 연 1회 훈련계획만 공단에 승인받으면, 각 훈련 단계별 공단의 승인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업의 최소 훈련시간이 단축(4시간→1시간)되고, 비대면·쌍방향 훈련까지도 허용한다.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주요 특징

행정부담감소	단시간 훈련 가능	비대면·쌍방향 훈련 가능
훈련과정 건별 신청 NO! 연단위 1회 신청 YES!	훈련시간 규제 NO! 1시간 훈련도 YES!	집체훈련만 가능 NO! 비대면·쌍방향 훈련도 YES!

기업들은 탄력운영제를 통해 필요한 훈련을 적시에, 자유로운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현장의 목소리

- 종합유통기업** ○○기업: 훈련 승인 대기시간이 없어 탄력운영제를 활용하여 **신규 제품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유연하게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었음
- 외식프랜차이즈기업** □□그룹: 현재는 일부 조리과정만 시범 운영중이며, 향후 전체 과정을 탄력운영제로 운영 예정
외식산업의 빠른 시장변화에 맞춘 신제품 개발 일정에 매우 적합
- 건설설비제조기업** △△기업: 현장과 교육일정을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다보니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면서도 **실질적인 역량 개발을 도모하여 교육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 탁월함**

공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성과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참여기업들은 탄력운영제 제도 참여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로 △과정별 승인 절차를 위한 행정업무 및 시간 감소(80.4%) △기업훈련의 자율성 확대(14.9%) △전체 훈련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체계성이 높아졌음(3.8%) 순으로 응답했다.

실제로, 참여기업의 훈련행정업무 소요시간을 확인한 결과, 기존 사업주훈련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소요시간은 16.14시간인 것에 반해, 탄력운영제 훈련의 소요시간은 4.78시간으로 7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훈련시간 규제를 완화(4시간→1시간)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여 운영이 가능(45.3%) △재직자 직무훈련을 적시에 운영 가능(16.8%) △정기적 반복이 필요한 리마인드성 훈련 운영 가능(13.1%) 순으로 평가했다.

탄력운영제의 단시간 훈련 허용이 기업들의 현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맞춤형, 반복적 훈련 및 소규모 특강 훈련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비대면·쌍방향 훈련의 장점에 대해 참여기업들은 △집체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훈련을 진행가능(50.0%) △교육훈련 소요 비용 절감(19.0%) △코로나 이후 비대면·쌍방향 훈련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음(16.7%) 순으로 응답했다.

탄력운영제가 기업들의 다양한 훈련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훈련비용 절감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훈련 성과인식 부분에서도 탄력운영제 참여기업이 미참여기업에 비해 △행정 효율성(참여4.19, 미참여 3.55) △훈련 운영의 적시성(참여4.11, 미참여 3.70) △매출 향상(참여3.46, 미참여3.20)과 같은 장기적 측면에서의 성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교육훈련의 인적·물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대규모 기업에 비해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운영제를 활용해 기업 훈련성과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대규모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우영 이사장은 “훈련 진입장벽을 낮추어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위해 산업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사업소개

● 개요

훈련정의 기업의 훈련체계와 연간 훈련계획을 사전 승인하여 승인받은 계획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훈련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훈련방법	▶ 집체훈련, 비대면 쌍방향
훈련주체	▶ 자체훈련 또는 자체+위탁훈련
훈련시간	▶ 최소훈련시간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실시 가능)
훈련대상	▶ 자사 또는 협력사의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훈련내용	▶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훈련내용
지원내용	▶ 훈련비 + 숙식비(근로자에게 제공할 경우)

지원금액 훈련비 + 숙식비 (일반 사업주 집체훈련과 동일)

- 훈련비: 기준금액* × 수료인원 × 사업장 규모별 지원율

* 기준금액: 훈련기준단가 × 훈련시간

** 단, 신기술(29개 분야) 훈련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 이내 지원

- 숙식비: 숙식비(14,000원), 식비(3,300원) 지원

* 1일 평균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집체, 현장훈련 등 대면 훈련에 한함

* 월 한도 1인당 330,000원 이내에서 지원

● 실시 및 지원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실시기업		실시인원	수료인원	지원인원	지원금액
	대표기업 (훈련기관)	참여기업				
'22	24	24	3,323	3,171	1,328	77
'23	118	198	50,741	46,167	25,745	1,614
'24	217	819	149,581	136,416	109,088	6,776
'25.11	329	1,888	182,121	158,258	181,860	12,485

청년의 ‘내 일’을 찾는 일경험, 정부·기업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2025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청년의 ‘내 일’을 찾는 일경험, 정부·기업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 제2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 및 우수기업 시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9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2025년 제2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청년 일경험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기업(4개소)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상 시상과 함께 일경험 및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자유로운 논의도 이루어졌다.

* **민간 주도 양질의 일경험 확산을 위해 주요 참여기업 등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 최근 권력적 채용 경향이 심화되면서 일경험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중요한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다.**

실제 참여 청년들의 경우 일경험으로 실무를 접해보며 직무 역량을 쌓고 해당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 참여 기업 또한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우수사례 공모전 기업 수기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카카오 계열사(주링키지랩은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품질 향상 등 실제 업무 성과로 이어졌으며, 일경험 청년 중 기업과 잘 맞는 인재를 채용으로 연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우수상을 받은 주식회사 현대홀쇼핑은 정보기술(IT), 방송 등 5개 직무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도록 지원했고, 청년들의 신선한 시각과 적극적인 열정이 회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경험 제공을 위해서는 대·중견 기업의 적극적 참여 확대 등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내년에도 청년 수요에 맞는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 등 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향한 첫걸음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많은 갈림길에서, 내 길을 찾다”



2025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수많은 갈림길에서, 내 길을 찾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7.(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자신의 길을 개척한 이들의 생생한 성공스토리를 담은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요리·미용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산업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국기훈련), 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경제를 담당하는 디지털첨단산업(KDT)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올해 발간한 사례집에는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과감히 도전을 선택하여 전문가로 거듭난 14인의 생생한 후기를 담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6년 차 자동차 엔진 정비사였던 그는 “10년 뒤 내 모습은?”이라는 불안에 빅데이터 분야에 눈을 돌렸다. 퇴근 후 3개월간 하루 평균 12시간을 투자해 빅데이터 분석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현업 경험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6개월간 K-디지털트레이닝 ‘AI-데이터·프로그래밍’ 과정을 수강했으며, 프로젝트도 수행했다. 현재, 그는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최적화 솔루션 기업의 생생형 엔지니어(Generation Engine Operator)로서, 인공지능(AI) 데이터 파이프라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사례집 5p, 웹툰 66p>

● 미술학원 상담실장이었던 그는 일을 그만두고 새 도전을 모색했다. 국기훈련 기계설계제작(CAD/CAM설계 등)과정에 참여하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현재는 OO기업의 기계설계 엔지니어로서 일하고 있다. <사례집 32p, 웹툰 68p>

*【CAD】컴퓨터지원 설계(Computer Aided Design),【CAM】CAD로 제작된 도면을 공작기계로 입력하기 위한 생산 준비작업을 하는 프로그램(Computer Aided Manufacturing)

● 한때 잘 나가던 방송작가였던 그는 코로나 시기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방향했다. 그는 고민 끝에 아내의 권유로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 과정에 참여했다. 현재는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인생 제2막을 열고 있다. <사례집 56p, 웹툰 70p>

사례집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비치하여 직업훈련 희망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 사례집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언급하며, “뿌리산업, 디지털산업 등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청년과 장년들에게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우리 지역 중장년 인재 발견 - 좋은 일자리 있고, 함께 성장하고!



2025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우리 지역 중장년 인재 발견 - 좋은 일자리 있고, 함께 성장하고!**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성과공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7일(수) 오전 11시, 호텔선샤인(대전 동구 소재)에서 「2025년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전국 50여 개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및 38개 중장년내일센터 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시범 운영한 「중장년고용네트워크」의 우수사례와 내년도 중장년 일자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장년고용네트워크」란 고용센터 및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폴리텍, 여성새일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일자리협의체로, 기업과 중장년 대상 ‘사례 관리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올해는 15개 고용센터* 주도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내년부터는 40개소로 대폭 확대해 지역산업의 현안을 중장년 고용으로 풀이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 시범 참여 고용센터 : 서울, 서울관악, 인천북부, 부천, 파주, 고양, 평택, 부산, 창원, 울산, 대구, 대구서부, 구미, 광주, 천안고용센터 등 15개소

1. ‘중장년 친화 기업 발굴 및 기업 서비스’ 분야

◆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적합 직무를 찾아 매칭(서울관악고용센터***)

올해 기업 서비스 분야의 최우수 기관은 서울관악고용센터로 선정됐다. 서울관악고용센터는 관할 내 구로-금천구 산업단지(G-Valley)에 집중해 유관 협회와 업무협약, 기업 상담회 등을 통해 정보기술(IT) 및 스마트 제조 분야의 중장년 구인 수요를 파악했고, ‘SW 테스터*’ 등 중장년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도 발굴했다. 또 서울서부중장년내일센터가 SW테스팅협회,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등과 협업해 ‘SW테스터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해, 수료자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품질테스트 전문 기업에서의 일거점 기회를 제공하여 채용까지 성공한 사례가 돋보였다.

* SW 테스터 : 기업에서 개발된 앱 소프트웨어의 초기 오류 검증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직접 소프트웨어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는 직무

◆ 「조선·자동차 산업」의 빈자리 해소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울산고용센터***)

울산고용센터는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산업에 구인난 문제가 지속되었던 만큼 이를 중장년 고용으로 풀이하고자 했다. 먼저 중장년내일센터와 손잡고 관내 200인 미만 사업장 2,500개사를 대상으로 구인 수요조사를 실시해, 62개사를 선별한 후 ‘찾아가는 중장년 고용지원 컨설팅’을 집중 지원했다. 중장년 고용 시 건강과 유관 경험을 중요시하는 기업 의견을 반영해 구직 희망 중장년에게 직무-안전소통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4회에 걸친 ‘중장년 특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해, 58명의 중장년이 채용되는 성과도 이끌었다.

◆ 「대기업 퇴직자」를 중소기업 전문역으로 경력 이음 (서울고용센터***)

서울고용센터는 2025년 상반기, 금융-정보기술(IT)-유통 등 대기업의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50대 고용 상황이 악화된 지역 여건을 파악했다. 이에 중장년내일 센터 (한국 경영 혁신 중소기업협회)에서는 해외 영업-경영-물류 등 분야의 대기업 사무직 퇴직자에게 ‘해외전문인력 전문역량교육’을 새로 마련해, 중소 수출기업의 전문역으로 재취업하도록 적극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과 50대 조기 퇴직자의 동반 성장을 이끈 점이 눈에 띄었다.

2. ‘중장년 재취업 및 고용’ 분야

◆ 탄탄한 네트워크로 맞춤형 새출발 지원 (인천북부고용센터***)

중장년 재취업 서비스 분야의 최우수 기관으로는 인천북부고용센터가 뽑혔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경영자총협회, 노인인력개발센터, 여성새일센터, 인천테크노파크, 한국폴리텍대학교 인천캠퍼스 등 광범위한 협업망을 구축해 중장년의 취업 애로사항을 적절히 해소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잘 수행했다. 먼저, 육아로 인해 근무시간이 유연한 일자리를 찾는 만 40세 여성 천○○ 씨에게 부평새일센터의 ‘디지털 튜터 전문가과정’과 청년공간 유티기지(인천시 청년지원센터)의 ‘청년 디지털 교육봉사’ 등을 연계하고, 인천성문화센터의 ‘현직자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프리랜서 강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했다. 또한 22년간 국악 예능 강사로 일해왔던 만 52세 남성 유○○ 씨에게는 적성에 맞는 버스 운전기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경력 목표를 설정한 후, 경기도청이 운영하는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과정’에 연계해 부천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의 경력 전환을 도왔다.

◆ 새로운 적성 찾아 경력 전환 지원 (대구고용센터***)

대구고용센터는 50대 이상 중장년들이 숨겨진 적성을 찾아 제2의 인생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들이 돋보였다. 보육교사로 일하다가 오랜 기간 경력 단절을 겪은 만 54세 여성 김○○ 씨에게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이후 대학병원에서 현장 실습과 멘토링을 받아 실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해 재취업 성공까지 이끌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업소를 폐업한 후 2년여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만 53세 여성 우○○ 씨는 중장년내일센터의 생애경력설계 및 1:1 상담을 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고, 3개월간 노인복지센터에서 경험을 쌓은 후 곧바로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중장년의 제도적 지원 (천안고용센터***)

천안고용센터는 경제적·정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장년에게 외부 기관을 활용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한 사례들이 돋보였다. 반복된 사업 실패와 배우자 사별로 위기에 처해있던 만 63세 폐업 자영업자 이○○ 씨의 경우, 중장년내일센터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협업하여 심리안정 지원과 1:1 일자리 상담을 지속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활 안정도 도운 결과, 급식 납품업체의 운전직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만 58세 구직자 홍○○ 씨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사업과 중장년내일센터의 심층 상담을 통해 희망 직무 분야를 파악했고, 이후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받아 지난 8월 시설관리직에 재취업해 새출발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장년고용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모여 기업과 중장년을 잇는 좋은 사례들이 더욱 확산해 나갈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재직자에게는 40대부터 초기에 경력설계를, 퇴직자에게는 훈련과 일거점 등 고용서비스를 종합 제공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 “특히 내년부터는 구인난 일자리에 취업한 중장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등 ‘직업훈련’과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통한 ‘일거점’ 기회도 확대하는 등 중장년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우수 직업훈련기관 15개소에 ‘사전심사 프리패스’ 부여



2025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우수 직업훈련기관 15개소에 ‘사전심사 프리패스’ 부여**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5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과 업무협약... 심사면제 등 자율권
- 이론보다 실무... 인공지능 서비스, 미래차 진단 등 현장형 기술인재 양성 주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장주성)은 12월 19일(금)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베스트 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15개소와 「직업훈련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은 급변하는 기술·산업 변화에 발맞춰 훈련과정을 혁신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훈련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15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이 복잡한 행정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훈련 본연의 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프리패스’ 2종을 부여한다. 우선, 통상적인 직업훈련 과정심사 절차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 인력이 필요할 때 우수 훈련기관들이 즉시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수 기관은 성과협약에 따른 총 훈련인원 내에서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4개의 베스트직업훈련기관(신규 1개소, 재선정 3개소)들은 화려한 신기술 이론보다는, 기업 현장에서 당장 쓸 수 있는 ‘기술 활용(Application) 능력’ 배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스마트인재개발원 (광주, 신규선정)은 인공 ‘광주 첨단 산업단지’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단순 코딩 교육을 넘어 ‘시를 활용한 웹-앱 서비스 제작’ 과정으로 차별화했다.

훈련생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여 최근 3년 평균 81%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으며, 지역민 2,600여 명에게 인공지능(AI) 기본 활용(Literacy)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저변 확대에도 기여했다.

◆ 글로벌산업기술교육원 (서울, 재선정)은 기계설계(CAD) 기술을 드론 산업에 접목했다.

훈련생들은 산업 표준 설계 툴(CATIA, Solidworks)을 이용해 드론과 서비스로봇을 모델링하고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도면을 그리는 기술’을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술’로 확장하여 뿌리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현대직업전문학교 (대전, 재선정)는 내연기관 정비 훈련을 전기차·미래차 분야로 개선한 ‘미래 모빌리티 진단평가’, ‘친환경 자동차 정비’ 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진단평가’ 과정은 수료생 전원 취업(100%)이라는 성과를 냈다.

◆ 은곡직업전문학교 (서울, 재선정)는 전통적인 건축목공 시공과 가구 제작 기술에 인공지능(AI) 기반 설계와 3D 모델링 중심의 스마트 설계 방식을 결합했다.

결합했다. 2D 도면을 넘어 3D 가상 공간에서 건축물을 설계·분석하는 디지털 기술을 시공 실무에 도입하여, 설계와 시공 능력을 모두 갖춘 ‘스마트 인테리어’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진정한 혁신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기술이 스마트하게 진화할 때 이루어진다”라며,

“현장에서 필요한 진짜 기술을 가르치는 훈련기관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 장주성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직무대리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훈련과정이 필요한 시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5년 7~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



2025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5년 7~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7월의 기능한국인 (주)문창 _ 문성호 대표

“깨끗한 물로 안전을 지키다, 세계 최초 면진형 물탱크의 길”

- 문성호 대표는 콘크리트 물탱크의 누수·오염 문제를 직접 경험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인이 되기로 결심했으며, 그 결과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면진형 물탱크와 STS 라이닝 공법을 상용화했다. “기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학교·병원·정수장의 안전한 물 환경을 구현해 왔다.
- 최근 20년간 IP5* 기준 물 저장 특허 등록 세계 1위를 비롯해 다수의 특허를 확보했고, ISO 인증과 조달청 품질보증 우수·혁신제품 지정 등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했다, 또한 석탑·은탑산업훈장과 대통령 표창, 혁신상 10년 연속(명예의 전당) 수상 등도 이루었다.
- * 전 세계 특허 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5개국
- 앞으로는 IoT·AI 기반 ‘스마트 물탱크’로 효율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면진형 기술의 해외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며, 청년 기술인 교육·멘토링도 지속해 ‘끝까지 해내는 기술인’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 8월의 기능한국인 (주)정인시스템 _ 유신하 대표

“전기를 통해 세상을 밝히다, 신념으로 이룬 국산화”

- 유신하 대표는 전기 부족 지역에서 성장하며 ‘모든 국민이 전기를 풍요롭게 쓰게 하겠다’는 신념으로 1997년 창업하여 2009년 전력산업에 진출했다. ‘25.8kV 에폭시절연 부하개폐기’ 국산화에 성공하여 한국전력공사 주요 납품 품목으로 안착시킨 성과를 거두었다.
- 이후 ‘25.8kV 에코절연 부하개폐기’, ‘25.8/29kV EGIS’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했고, 5건의 특허와 4건의 디자인등록, 1건의 실용신안 등록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 또한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전력 기술을 추진하며, 관련 산업 기반을 넓혀나가고 있다. 한편,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활동과 폴리텍·특성하고 출강 및 장학사업으로 후진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3 9월의 기능한국인 (주)세아씨엔티 _ 윤성식 대표

“현장에서 답을 찾다, 스마트 자동화로 지속가능 제조를 이끈다”

- 윤성식 대표는 학창 시절 미술에 대한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물의 움직임에 대한 호기심으로 공학을 선택했다. 이후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선·센서·모터 등을 일일이 점검하며 원인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
-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자동차 생산라인의 조립·검사·물류 설비를 직접 개발하여 스마트공장 전환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노후 태양광 설비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자동화·검사·가전, 자원화 관련 특허 3건과 ISO 인증 등을 획득했다.
- 또한, 윤 대표는 멘토링과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 인재를 육성해 왔으며, 이로 따라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등 인증받았다. “기술의 깊이는 현장에서 만들어졌다. 쓰러질 것 같을 때 한 번 더 버틴 시간이 결국 답을 보여줬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4 10월의 기능한국인 한라IMS(주) _ 김영구 대표

“국산화로 조선기자재의 기준을 세우다, 세계로 확장한 기술력”

- 김영구 대표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시절, 용접·배관 등 기초 기계기술을 익히며 기술은 손기술뿐 아니라 태도와 책임을 함께 배우는 것임을 깨달았다. 1980~90년대 급성장하던 조선 현장에서 외국인 장비 의존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며 “국산 핵심 기술 없이는 산업 경쟁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라IMS(주)」를 창업했다.
- 그는 외국산 중심이던 조선·해양 기자재 분야에서 핵심 장비를 국산화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렸고, 다수의 특허와 ISO 인증을 바탕으로 「한라IMS(주)」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5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며, 전체 매출액의 60% 이상을 해외 시장에서 창출하고 있다.
- 김 대표는 “앞으로도 AI·IoT 기반 스마트 선박 기술과 친환경 기자재 국산화, 해외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술의 힘은 꾸준함에서 나오며, 산업의 미래는 청년 기술인에게 달려 있다”라며 인재 육성과 산학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5 11월의 기능한국인 (주)정채움 _ 정한철 대표

“손맛을 기술로 확장하다, 양념육 제조의 표준을 만든다”

- 정한철 대표는 해군 조리병 경험을 계기로 요리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작품’으로 여기며 제대 후 외식경영 등 관련 전공을 공부하며 전문성을 쌓았으며, 작은 차이도 그냥 넘기지 않는 습관으로 양념육 전문 공정을 표준화하여 대량생산에서도 손맛을 유지하는 기술 기반을 이루어냈다.
- 그는 팽이버섯 추출물 양념소스, 매운 제육 양념, 육가공품 포장 장치 등 핵심 공정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고, 원료육 절단부터 포장까지 전 공정을 직접 운영하며 맛·품질·위생의 일관성을 지켜왔다.
- 정 대표는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직원들을 동료로 대하는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혜전대학교, 호원대학교,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등과 MOU를 맺어 현장실습, 취업을 연계하고, 기능경기대회 훈련 식자재를 지원하는 등 후배 기술인 양성에도 힘써왔다. 그는 “작은 차이를 끝까지 파고드는 태도가 진짜 기술의 힘”이라고 말했다.

6 12월의 기능한국인 금강엔지니어링(주) _ 정선용 대표

“환경을 기술로 해결하다, 수처리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다”

- 정선용 대표는 천안공업고등학교 화공과를 졸업하고 동시에 화학 분석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며 환경오염물질 분석 업무에 뛰어들었다. 이후 폐수처리 시설 설계·시공 경험을 계기로 1997년 「금강엔지니어링」을 창업해 수처리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 그는 융합형 하·폐수 고도처리 시스템, 전기분해 폐수 처리장치 등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특허와 ISO 14001 환경경영 인증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오염 저감과 처리 효율 향상을 이끌었다.
- 정 대표는 대학 강의·사내 교육·장학 지원으로 환경기술 인재를 꾸준히 키워왔으며, “환경 기술은 직업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미세플라스틱 등 신규 환경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산업현장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청년 기술인재들의 귀감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 총 6명을 2025년 7~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여 12월 18일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직업계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숙련 기술인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금까지 총 226명의 기능한국인이 배출되었으며, 매년 후배들에게 기술인재로 성장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 및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지역에 성금 기부 및 피해지역 봉사 활동 등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능한국인 여러분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산 증인으로서, 작은 노력과 꾸준한 헌신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이뤄냈음을 몸소 보여주었다”라고 감사의 말을 표했다. 아울러, “오늘날의 기술 성과는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여러분의 송고한 헌신 덕분”이라며 청년들이 미래 기술 인재로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고, 등대 같은 길잡이가 되어달라”라고 부탁했다.

*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Functional Koreans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떠오르는 섯별, '기특한 명장' 위해 노동부-교육부 손 맞잡는다



2025년 12월 23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떠오르는 섯별, 기특한 명장' 위해 노동부-교육부 손 맞잡는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업계고 학생의 교육·훈련·취업을 위한 고용노동부-교육부 협약 체결
- 제1기 기특한명장 67명 선정(학생회원 20명, 기술회원 47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23.(화) 동대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직업계고 학생의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우수 청년 기술 인재를 발굴·격려하는 기술인재특별대한민국명장(학생회원 및 기술회원) 증서* 및 장관상** 수여식을 함께 개최했다.

* (증서규모: 총 67점) 기술회원 47점, 학생회원 20점

** (포상규모: 총 39점) 학생회원 20점, 학교 19점(학생회원 배출학교)

1. 고용노동부-교육부 업무협약

이번 업무협약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술을 배우는 과정부터 일터에 첫발을 내딛기까지의 과정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함께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새롭게 도입되는 기특한 명장제도를 통해 직업계고의 우수한 인재들이 일찍부터 기술인재로 성장하는 길을 연다. 교육부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인재를 발견하면 노동부는 그 가능성이 기술역량과 숙련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연수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디지털 등 첨단산업부터 건설업 등 뿌리산업까지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직업계고 교원에 대해서도 첨단분야 연수와 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해 학교 교육이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 수요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학생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도록 졸업 전·후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졸업 전에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졸업 후에는 노동부-교육부 정보연계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생에게 먼저 다가가 집중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나아가,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기관 등과 협력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련 사전점검과 기술지도를 제공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교원을 노동인권 지도교사로 양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노동인권 강사를 파견하여 일터 현장에서 필요한 근로계약, 임금,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한 교육을 집중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부와 교육부는 기술을 배우는 청년이 안전하게 일하고,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 기특한 명장 수여식

① 이도원 학생회원(금속재료제조)

꿈을 위한 노력이 자격증 취득왕까지



- 포항 제철공고에 재학중인 이도원 학생은 금속재료 제조의 전문가를 목표로 금속재료시험기능사를 포함하여 제선, 제강, 압연, 열처리, 침투비파검사 기능사 등 관련 자격 15종을 취득해 '자격증 취득왕'의 성과를 거두었다.

- 이도원 학생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다양한 자격을 취득하여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대한민국명장이 되고자 품어온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로 '기특한 명장'으로 선발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직무를 단순한 일이 아니라 소명으로 여기며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으로 금속재료제조 분야에 기여하는 명장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② 문주희 학생회원(제과제빵)

미래의 대한민국명장을 위하여



- 대전대성여자고에 재학중인 문주희 학생은 제과제빵에 대한 깊은 열정을 바탕으로 매일 12시간 이상 집중 훈련하며 실력을 연마해 왔다. 그 결과 '25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금메달, 한국국제요리 제과 경연대회 금상, '24년 월드푸드챔피언쉽 금상, '25년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 동상 등 다수의 대회에서 수상했으며, 고등학교 재학 중 제과제빵뿐 아니라 한식조리, 양식조리, 조주기능사 등 총 7종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 문주희 학생은 "기특한명장으로 선발되어 대한민국명장과의 1:1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이석원 명장님같은 대한민국명장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연마해 대한민국 제과제빵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③ 정다운 기술회원(헤어디자이너)

대를 이은 숙련기술인의 삶, k-뷰티 전문가



- 아모담헤어에 재직중인 정다운씨는 어머니와 같은 헤어디자이너 직종에서 활동하며 일찍이 미용 분야에 뜻을 세워 만12세에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전문성을 꾸준히 쌓아왔다. 이후 미용·이용 기능장 자격을 획득하고, '2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선수들을 지도하여 '24년, '25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스타 기술인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숙련기술인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해 왔다.

- 정다운씨는 "국제대회 선수로서의 경험과 후배선수 지도 활동, 헤어숍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숙련기술인의 길을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며, "대한민국명장 제1호 박동수 명장님이 대한민국명장의 시작을 여셨던 것처럼 기특한명장 제1기로서 기특한 명장 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④ 이희동 기술회원(CNS밀링)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국제올림픽 홍보대사



- 삼성전자에 재직 중인 이희동씨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숙련기술인으로, '15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금메달을 따며 이름을 알렸고, 이후 3년간 국제기능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 황해도 명장(누리호 엔진의 아버지라 불림)의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명장을 꿈꾸게 됐다는 그는 "앞으로는 청소년 대상 직업진로지도 특강을 통해 후배들이 숙련기술의 길에 도전할 때 겪는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 도움을 주고 싶다."라며 "대한민국명장이 되어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수여된 '기특한 명장' 인증과 장관상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로 구성된 '기술회원'과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기술인재로 검증되어 선정된 '학생회원'의 성과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이들에게는 대한민국명장 선정 시 가점부여, 대한민국 명장과 1:1 멘토-멘티제 운영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이 주어지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시스템(hifive.go.kr)에 기술인재로 등록되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특강강사로도 활약하게 된다. 이날 시상식에서 기특한 명장 학생회원으로 선정된 이은찬, 장현준 학생이 기특한명장으로 선정된 과정과 앞으로의 포부를 발표했고, 평소 존경하던 대한민국명장인 유지대, 조재훈 명장과 깜짝 만남도 가졌다.

고용노동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기특한명장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숙련기술의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며 희망이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여러분들이 K-숙련기술 선배들의 대한민국 숙련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후배 기술꿈나무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직업계고등학교의 기술인재들이 숙련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정책인 기특한명장 제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말하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선발된 기특한명장들이 후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재취업지원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5년 12월 🔍 연구자 : 김민규
🔍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국내 재취업지원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국내 재취업 현황 및 통계 분석
- 국내 재취업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활용방안 제안 및 성과지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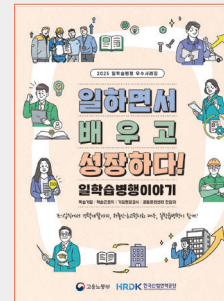
☑️ 주요목차

- 해외취업(경험)자 대상 지원제도 분석
- 해외취업(경험)자의 귀국 이후 실태 분석
- 국내재취업 서비스 고도화 방안
- 성과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방안

2025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집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5년 12월
🔍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5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집**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일터 중심의 인재 육성 시스템 정착
- 참여자 중심의 성장 사례 부각
- 소규모 기업까지 제도 확산 가능성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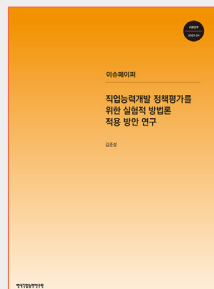
☑️ 주요목차

- 일학습병행 제도 소개 및 절차 안내
- 우수 학습기업 사례
- 우수 학습근로자 및 기업현장교사 사례
- 현장교사 및 센터 전담자의 헌신과 전문성 강조
- 훈련 성과의 측정과 제도화 방향 제시
- 공동훈련센터 전담자 사례

직업능력개발 정책평가를 위한 실험적 방법론 적용 방안 연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5년 9월 🔍 연구자 : 김준성
🔍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직업능력개발 정책평가를 위한 실험적 방법론 적용 방안 연구**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해외의 증거 기반 정책평가 제도 역사 및 현황 분석
- 실험적 방법론의 기본 원리 설명
- 고용 정책에 관한 실험적 방법론 적용 해외 평가 사례 검토
- 직업훈련 정책의 실험적 방법론 적용 방안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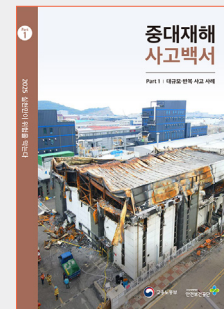
☑️ 주요목차

- 실험 기반 정책평가의 이론과 사례
- 정책실험 설계의 실제와 고려사항
- 정책 제언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



🔍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반복 재해의 경향성과 구조적 원인
- 법 위반 사례의 유형화

☑️ 주요목차

- 중대재해처벌법 및 제도 개요
- 산업별 중대재해 사례 수록
- 경영책임자 참여와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 사례 기반 학습 및 반복 교육의 필요성
- 공동 위험요인 및 핵심 예방수칙 정리
- 실천 가능한 예방 활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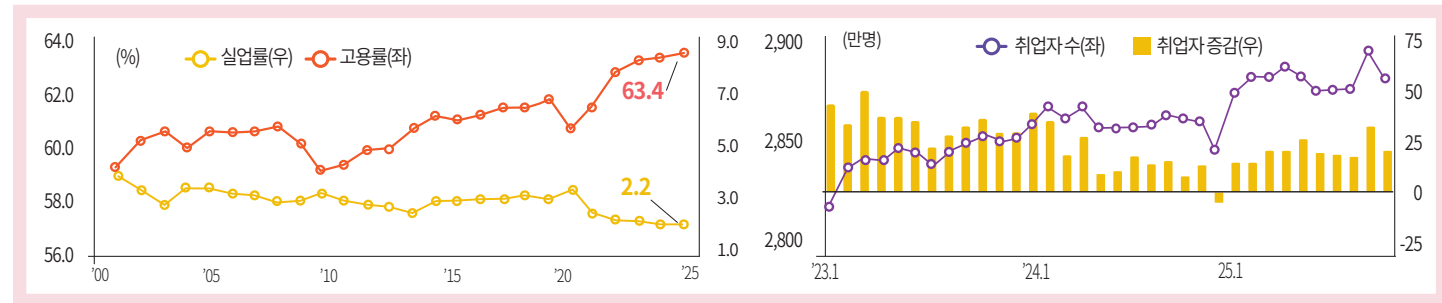
2025년 11월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2025. 12. 10.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5년 11월 고용동향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용률(63.4%) · 경제활동참가율(64.8%)은 월간 역대 1위, 실업률(2.2%), 취업자수 +22.5만명 증가
 - 15세 이상 고용률(63.4%)로 전년대비 상승, 15~64세 고용률(70.2%, +0.3%p) 역대 1위
 - 경제활동참가율(64.8%, +0.2%p) 역대 1위
 - 실업률(2.2%, 포함) 11월 기준 역대 최저 1위
 - 취업자수 전년대비 +22.5만명 증가,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9만명 증가

⇒ 15세 이상 고용률 · 실업률(원계열, 매년 11월) + 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원계열, 계절조정, 전년대)



- ☑ (산업) 서비스업 증가폭 축소, 제조업 감소폭 축소, 건설업 감소폭 확대
 - 서비스 내수 연관 서비스업(예술여가, 사업시설, 운수창고 등)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되며 57개월 연속 증가(+48.1→+51.6만명)
 - 예술여가(7.0→6.1만)·사업시설(1.4→6.3만)·운수창고(1.4→4.1만) 등은 소비심리 개선 영향으로 함께 증가폭 확대
 - 정보통신(△0.4→2.2만)은 4개월 만에 증가 전환, 금융보험(3.4→4.9만)은 20개월 연속 증가 등 전문 서비스업도 증가
 - 숙박음식(2.2만→△2.2만)·도소매(4.6→1.1만) 등 최근 개선세를 보인 일부 내수 서비스업은 취업자수가 조정
 - 보건복지업(28.0→28.1만)은 돌봄수요 증가 및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 효과 지속되며 취업자 증가
 - 제조 기저효과('24.10월△3.3→11월△9.5만) + 최근 내수 개선 및 반도체 등 수출 호조 영향으로 7월 이후 감소폭 지속 축소(△5.1→△4.1만명)
 - 건설 조사기간 기온 저하 등으로 감소세 지속(△12.3→△13.1만명)
 - 농림 상반기 작황부진 여파로 인해 감소 지속(△12.4→△13.2만명)
- ☑ (지위·연령) 상용직 비중 57.4%(+0.4%p), 청년층 제외 고용률 상승
 - 지위 상용직 증가폭 축소(+25.8만명),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
 - 비임금근로자는 고용無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중심으로 감소, 고용有 자영업자는 증가폭 확대(1.9→7.5만명)
 - 연령 30대 이상 연령대에서 고용률 상승, 청년층은 하락폭 확대
- 청년층 고용률(44.3%, △1.2%p) 하락, 실업률(5.5%, 0.0%p) 포함
- 청년층 쉬었음(41.6만명, +0.7만명)은 7개월 만에 증가 전환
- 30대는 인구증가 대비 취업자수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 4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
- 5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 60세 이상은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고용률 상승 지속
- ☑ 2개월 만에 증가폭 확대되며 20만명대 증가, 경찰·고용률 역대 최고 내수 연관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 지속되나, 건설업·청년 등 어려움 지속
- 서비스업은 내수 개선세가 지속되며 사업시설·운수창고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 정보통신·금융보험 등 전문 서비스업도 증가
- 다만, 최근 개선세를 보였던 숙박음식·도소매 등 일부 내수 연관 서비스업은 취업자수가 조정되는 모습
- 제조업은 기저효과 및 내수 개선, 관세협상 타결(10.29) 이후 기업심리 개선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감소폭 축소
- 건설업은 기온 저하 등 기상요인 영향으로 감소폭 확대
- 청년은 취업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제조업 등 부진 지속 등으로 고용률 하락폭 확대, 7개월 만에 쉬었음 증가 전환 등 어려움 지속
- 청년은 6개월 연속 쉬었음 감소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고용률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

⇒ AI 대전환 초혁신경제를 통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강화에 총력, 구직·쉬었음 청년 등 취약부문 보안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노력

- '26년 경제성장전략을 관계부처 협업 하에 차질없이 마련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 AI 중심 직업훈련 개편, 지역고용 활성화 및 청년 일경험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관련 '26년 예산이 즉시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
- 청년 쉬었음 동향 및 원인을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역량 강화·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 맞춤형 지원방안 강구

기관 link



- 12.5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
- 12.16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고시
- 12.18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I역량 Up 프로젝트 발표
- 12.18 2025년 7~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
- 12.19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협약식
- 12.23 직업계고 학생의 교육·훈련·취업을 위한 고용노동부·교육부 협약 체결 및 기특한명장 수여식



- 1.1~1.16 2026학년도 학위과정 정시 원서접수
- 1.1~ 직업교육과정 교육생 원서접수
- 1.7 다습고등학교 졸업식


<온라인평생교육원>

- 1.9 2025년도 공공콘텐츠 자문 및 품질평가 사전교육
- 1.22 「가상훈련의 날」 개최
- 1.21~1.23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STEP 홍보부스 운영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11.30~12.3 한·몽골 국제 세미나 개최, TRIPLSP와 MOU 체결
- 12.9 직업계고 교육과정 학점제 정책 포럼 및 성과보고회
- 12.9 2025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성과보고회
- 12.12 제7차 직업능력개발 포럼
- 12.16 삼중전환 시대 국가인재개발 전략 공청회
- 12.18 2025년 진로교육 성과공유회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노동시장 격차 해소

- ✓ 청년의 일할 기회 격차 해소
- ✓ 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
- ✓ 노동시간 격차 해소
- ✓ 임금·복지 격차 해소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 외국인 노동자 통합지원
- ✓ 일하는 모두에게 AI 역량 강화 지원
- ✓ 일하는 방식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 ✓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 대응
- ✓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